

모 두 발 언

2017. 11. 13. (월)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윤석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부문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
1986년부터 3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사회적 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요 금융정책 수립시
보다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할 두 안건은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금융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 그리고 **‘포용적 금융’**과
연계된 과제입니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실물경제 지원을 포함한 **‘금융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일 뿐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통해
금융이 독자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I.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먼저, 첫 번째 안건의 주제인 **‘혁신성장’**은
일자리 중심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이번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성장전략입니다.

지난 2일 정부는 혁신성장의 로드맵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 강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1) 이를 위해

먼저, **혁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M&A, Spin-off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3)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또 다른 혁신기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혁신하여 회수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4)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패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하여 점차 민간금융권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5) 특히, 자본시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4가지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것입니다.

첫째, 코스닥 시장으로의 민간자금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을 적극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대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는 등 코넥스 시장의 성장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양성하겠습니다.

초대형 IB,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가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 공포(17.10.31.)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외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타 금융 대책들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Ⅲ.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다음,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입니다.

혁신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양극화, 일자리부족,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순 세계적으로도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민간 스스로 경제활동 과정에서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유럽과
자선·기부 문화가 발달한 영미권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1만5천여 개에 이르는 등
단시일 내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확대를 이루었지만,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설자금 등 **다양한 자금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는
정부·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전달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인프라 구축”**을
사회적 금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확고한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함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중**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배분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때
금융에 대한 신뢰가 쌓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금융발전심의회가
우리 **금융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
금융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